

사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고난과 핍박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3월 30일 (토) 제 1963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부활시

큰 선물



송암(松巖) 권 태 진 시인

군포제일교회 당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행복한 당신
당신의 사랑고통 풀어주시려
독생성자 보낸
아버지의 큰 사랑 깨달아 보았는가

복 받은 당신
당신의 죄 대속한
예수님 순종의 삶 생각에 보았는가

해산의 고통 생명 태어나고
십자가 고통 새 생명 거듭나니

죽음의 형벌 넘어
부활의 능력 바라보는
신령의 눈 열림
주님의 큰 선물이구나

배신과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 닮길 원함은
부활의 승리 믿음이요

몸은 고난의 늪 빠져도
마음엔 부활의 믿음 있으니
육체는 신음하나
영혼은 감사의 노래로 호흡하누나.



부활절 특집설교
황의영 목사

3면



부활절 메시지
정관호 목사

4면



교회선교의 선순환
조용중 선교사

13면

에릭을 아시는가? 에릭 윌터스토프. 대부분이 모르실 것이다. 나도 그를 모른다. 여러분이나 필자도 그를 이 땅에서 만날 일은 없다. 그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1958년에 태어난 그는 25세가 되던 198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등반 사고로 사망했다. 에릭을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1992년도 발간된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통곡”은 에릭의 아버지 니콜라스 윌터스토프가 그의 아들 에릭을 잃고 애가(哀歌)와 같이 쓴 책이다.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교수는 개혁주의 관점을 가진 기독교 철학자이다. 글로 표현된 그의 아픔이 다분히 개인적이고, 오래되었고, 먼 곳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아픔이었다. 그의 글에는 이런 표현도 있다. “에릭은 가고 없다. 여기 그리고 지금 그는 가고 없다. 지금 나는 에릭과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그를 볼 수 없고 지금 그를 껴안을 수 없으며---바로 그것이 내 슬픔이다.” 죽음이 끝이라면 윌터스토프 교수의 슬픔은 끝이 없었을 것이다. 믿음을 가졌던 에릭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선진(先進)이 그러하셨듯이 아버님도 태어나신 황해도 고향을 사뭇 그리워하셨으나 늘 “더 좋은 분향을 찾는 자”로 사시다 분향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다. 목회의 길을 걷고 있던 아들에게 평생 그 사명에 흔들리지 말다가 만나자는 듯이 “복음전파, 복

지난 22일 저녁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연장에서 백수십 명이 사망하고 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몇몇 무장 테러리스트의 무차별 난사(亂射)가 빚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지난 26일 새벽에는 볼티모어항(港) 다리에 대형 화물선이 충돌해 그 위를 지나던 몇몇 차량이 물로

촉 못 할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로 죽음 이후의 모습이 영원히 나누일 뿐이다.

최근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던 집사님의 장례예배를 접해하였다. 꽃샘추위인지 약간 매섭고 바람 부는 별관에서 하관 예배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유가족과 함께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날 남겨진 아내와 세 딸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조문객은 하염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더욱 추웠을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베다니 동네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에스겔이 분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맛따핀 죽은 것 같은 일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슬퍼하거나 포기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계속 떠들 것이다. “교회는 죽었다” “너는 끝났다” 그런가? 아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교회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외치시면 오늘의 어떤 나사로도, 오늘의 어떤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음전파, 복음전파” 세 번을 외치시고 떠나신 아버님이 그날따라 더욱 뾰고 싶었다. 죽음이 끝이라면 아버님을 다시 뵈 일도 없을 것이요, 어떻게 “복음전파”했는지 말씀드릴 앞날도 없을 것이다.

떨어져 여러 사상자를 내었다. 영화에서나 볼만한 사건들이 며칠 새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러시아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사망한 이들이 그날들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예

며칠 전 사순절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눈가에 잠시 눈물이 담겼다. 성도 중에 몇몇 분은 그 눈물을 잠깐 보았겠지만 내 마음에 계속 흘렀던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날은 아버님이 1992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신 날이었다.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분향을 남긴 사람”이었다. 성경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 요한복음 11:25~26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확! 바뀝니다.
역사적 과업을 위한 목회혁신전략
SBM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방

3대 목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총재 : 황의명 목사
세계교회에 희망을 드립니다
C.P. : +82.10.5230.9190

SBM FOUNDATION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1820호
Phone +82.2.564.3191 / Fax +82.2.564.6933
E.mail : sbmusa@hanmail.net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f SBM
5531 Fullerton Ave.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Phone 562.810.9191

SBM Foundation
• SBM 본부 • (주) SBM 인터네셔널
• (재) SBM 장학재단 • 사랑장로교회
• SBM ART HALL • 청주동양장로교회
• SBM Chorale • SBM 캄보디아교회
• SBM Media • SBM 필리핀교회

SBM Global Networks
• SBM Argentina • SBM Botswana
• SBM Brazil • SBM Canada
• SBM Cambodia • SBM Japan
• SBM Korea (HQ) • SBM Philippines
• SBM South Africa • SBM U.S.A. • SBM Zimbabwe

Scripture to Faith • Biblically Applied Life • Model for Enculturation

시론

강남스타일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12년 7월, 가수 싸이가 신곡으로 발표한 노래 중의 하나가 지구촌 전체에 신선한 분위기를 주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 혹은 사고관을 지칭하는 '강남좌파' 혹은 '강남우파'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미 2005년에 '강남좌파'라는 책 제목으로 소개된 단어입니다만 19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인구 2,200만 명 중 호남출신이 700만, 영남출신이 600만 그리고 충청출신이 500만이고 나머지 400만 정도가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전체 서울인구의 20% 미만이 서울출신이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입니다.

이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떠난 지방의 낙후된 현실을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서울에서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이런 어중간한 사람들을 강남좌파라는 말로 표현해 봅니다.

세칭 강남좌파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자신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생각과 논리는 있지만 현실이 주는 안락함으로 인해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성과 이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스승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증언 한 번 하지 못한 채 멀쩡히 서서 구경만 하다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양심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이 재판정을 박차고 나와 하늘을 보며 대성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랬던 그 짜질이 어느 날 스승이 섰던 그 법정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스승을 재판하던 동일한 종교인과 범조인들을 향해 자신이 바로 그 스승의 제자이며 그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놀랍고 대담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의 삶을 훑어보았더니 대 역전의 한 가운데에 스승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강남좌파가 되어 평생을 짜질로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 부활사건은 우리의 자리를 좌파나 우파나 하는 곳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줄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 좌와 우를 넘어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고뇌하는 모든 지구촌 미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살림을 전합니다!

hankschoi@gmail.com

로마서 8:28이 없다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제시하기에 로마서 8:28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 구절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나와 관련해서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나는 로마서 8:28을 먹고 살았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탐하듯,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듯, 나는 이 구절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게 나의 분명한 고백이다. 나에게 로마서 8:28이 필요했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위로하고 슬픔을 덜어주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친숙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고 많은 사람이 암기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당신이 혹시라도 로마서 8:28이 없는 세상이 어떨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로마서 8:28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놓고 “선을 이룬다”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 중 일부가 해를 끼치며, 사탄과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내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또 우리의 경험 중 어떤 건 아예 아무 소용이 없으며 삶에는 그 어떤 목적도, 의미도, 또 구원도 없는 마구 일어나는 자의적인 요소로만 가득하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여기에는 그 어떤 선함도 없어. 여기서는 아예 선함이 나올 수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로마서 8:28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 중 어떤 것은 결국 선을 이룰 것이지만, 또 어떤 것은 결국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혹은 어떤 것은 선

을 이루지만, 어떤 건 공허하고 무의미한, 하나님 섭리의 블랙홀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로마서 8:28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일하려면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우리도 우주와 같은 비인격적인 힘이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의 배후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우주에 자신의 섭리를 수행하는 신이나 지적인 존재는 없고 단지 냉담하고 비인격적인 운명이 있을 뿐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로마서 8:28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이 없다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이 없다면, 우리가 시련을 겪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그런 시련을 통하여 성취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시련을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제대로 숙고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8:28이 없다면, 고통은 참을

수 없고 모든 슬픔이 무의미하다고 내리는 결론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로마서 8:28이 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주셨다.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많은 이들이 범했던 오류, 이 구절에 대해 가혹하거나 부정확한 해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내게 이 구절보다 더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거의 없다.

로마서 8:28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 일하셔서 악에서 선을, 어둠에서 빛을, 슬픔에서 기쁨을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상황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일종의 우주 PR맨처럼 특별히 민첩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목적만큼이나 수단을 중시하는 계획자, 엔지니어, 그리고 설계자이시다. 하나님은 고통과 폭풍, 어둠과 새벽, 기근과 절기를 정하신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사건은 없고, 목적 없는 상황은 없고, 궁극적으로 절망적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어두운 날, 어려운 시련,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독교서점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물: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전 등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당 \$7
뉴욕: Tel. (718)762-0011 | 뉴저지: Tel. (201)346-0030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예수 다시 시작했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모든 독자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김성국 목사 외 직원일동

부활절 특별설교 영적예배의 유익과 조건 로마서 12:1



황의영 목사

(SBM FOUNDATION 총재)

신앙생활의 중심은 곧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 생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상태를 측정하는 잣대의 하나가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첫째도 단연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이라면 온 가족이 함께 당연히 공식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성장이 침체되고 더 나아가 쇠퇴하고 열심히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감격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오늘의 현상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온전한 영적인 예배의 여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개개인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내태하거나 세속에 물들지 말고 부디 예배생활이 활성화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문을 토대로 “영적예배의 유익과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깊이 깨닫고 은혜받는 대로 철저하게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와 관련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당연히 영적예배라야 합니다. 영은 영과 통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예배시간에 참석해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통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온전한 영적예배(spiritual worship)라야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도 빈틈없이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예배에 전제조건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깨우치고 즉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예배를 위해 몸이 앞서야만 합니다

정보 만능시대를 살아가며 각종 매체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유롭게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또한 갖가지 강좌를 통해 성경지식도 쉽게 접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지난 몇 년간 COVID-19을 통해 영상예배 실황이 각 가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방 안에서 편하게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굳이 교회에 가는 것이 귀찮아

졌습니다. 그런 습성에 사로잡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하나의 구실이 되는 타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안일과 게으름으로 방 안에 편히 앉아서 영적인 예배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와 멀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요 15:4-6) 온전한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림은 물론 갖가지 봉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 갈 수 없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혼자서(혹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준비하고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거나 온전한 영적예배는 반드시 예배시간에 맞춰 교회로 달려와야 함을 부디 명심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는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힘차게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양식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마땅히 정성껏 미리 준비한 예물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삼위

일체 하나님이기때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아벨처럼(창 4:4) 기쁘게 받으시는 준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즉 우리는 그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고 피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은 인위적인 공작이나 단련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3-2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감화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인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을 지식(이론)으로만 믿고 구체적으로 순종(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춰도 그 내면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의 소유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약 2:17, 26).

온전한 영적예배를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예배의 본질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예배의 전제조건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몸을 구약시대의 제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불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가 기록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4-20)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예배의 진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영적예배의 기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영적예배는 단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준비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영적예배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물질문명에 오염되어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낙히 이길 수 있습니다(요 16:33). 그러면 비로소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확대될수록 교회부흥과 성장 동력이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예배의 확립과 함께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말씀을 따라 영적예배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정착을 할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4-16).

아멘, 할렐루야!
sbmusa@hanmail.net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집과정

1. 학사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 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24학년도 • 일 시: 2024년 7월 8-10, 15-17
여름학기 (서부시간 오후 7시-9시 30분)
• 장 소: Zoom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선교 장학금(선교 사역자에 대해서는 50%의 장학금이 지급됨)

2024 학년도 Zoom 여름 특강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 과목명: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 교 수: 이승구 박사 (Ph. 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 일 시: 2024년 7월 8-10 일, 15-17 일 (서부시간 오후 7시-9시 30분)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나눔과 섬김), 『광경의 신학』(한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SFC),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SFC), 『전환기의 개혁신학』(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 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36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2.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학위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48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 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함께 강조하는 부활절



정관호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부활절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입니다. 비슬리-머리(Beasley Murray)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

성을 이렇게 갈파하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빈 무덤(부활)을 목상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 있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이 주일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과거형)을 선포하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

아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미래형)을 우리에게 선포하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현재형)을 선포하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우리에게 육체적 부활을 주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3위1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지상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 한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 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고 텅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이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들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었는데 그분의 부활로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과 5,000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영광의 주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회심하고 변화되어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는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온 세상과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으며, 부활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kwanhochung@hot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치 죄인 취급 당하여 인적 모독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분함입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혈압이 올라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

심과 증오감으로 가득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DNA 속에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

니다. 희노애락, 고통과 자존심도, 억울한 감정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증오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잔인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죄목은 ‘유대인의 왕’(마 27:37)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역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도리어 피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대답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해 버렸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역시도 사건의 내막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현몽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빌라도는 자신의 처세에만 급급하여 무죄한 예수를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속물로 내어 놓고 자신은 손을 씻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전하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께서는 악독한 인간들로 부터 세상에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패역한 인생들로 부터 가장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당했다 치더라도, 아버지마저도 어찌하여 외면하시고 버리셨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듣지 못했을까요? 보시지 못했을까요? 어찌하여 외면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사박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예수께서 강도질을 했습니까? 훔치기를 했습니까? 백색 거짓말도 모르는 무죄한 메시아를 왜? 어찌하여 아버지 보다는 더 억울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수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조롱하고 침 뱉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눅23:34)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살점이 찢겨 떨어져 나가는 채찍 속에서도, 척추의 중추 신경이 노출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 서도 예수께서는 복수는커녕 도리어 저들에게 복을 빌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이 버렸고 아버지마저도 버리셨던 예수는 이렇

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당한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만 명령하면 12군단... 54,000명의 보병과 기병들을 즉시로 동원할 수 있는 전능자였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한 마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시면서 용서와 축복의 기도로 대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극도의 억울함과 고통을 참아야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무한대로 바쳐진 황소와 염소와 양들과 불가지수의 대속의 희생 제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미래 세대들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가장 억울한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각 억울함을 당했다고 보복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참한 투쟁의 역

사들만이 쌓여갈 뿐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찌라도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또 더 큰 복수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갈등과 억울함의 완전 해결책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만이 인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롬5:19) 그러나 이 억울한 죽음도 사후에는 영원히 묻어 둘 수가 없어서 완전한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새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jykim47@gmail.com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Features a family photo, a list of services (e.g., Endoscopy, Colonoscop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octor, Joon Mo Myung, M.D. The ad includes the text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and '기본 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무엇인가? 죽음의 울가미이다. 죽음, 그 자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공시키며 이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그 참된 승리를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잘 죽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은 죽음을 멸망 혹은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잘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맛보는 통로이며 시발점이 된다.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잘 죽으면, 삶에서도 복이 넘친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죽는 만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신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가?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아직도 제대로 죽지 못해서, 덜 죽어서, 자주 육신의 자아가 살아남으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잘 죽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데, 잘 죽지 못하니 주인이 종을 쓰기에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이다. 부족하면 고쳐 쓰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먼저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의 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잘 죽는 길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렵지 않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도,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으실 만큼, 예수님 자신도 최악 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치러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아들 예수를 죄인들의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직접적인 동기가 이런 사랑, 죄인들을 위한 극한 사랑이 이유가 되

십자가 사랑, 그 열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한 서기관 질문에 대해 사랑을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의 모든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다. 남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해보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찬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 결과, 열매는 무엇인가? 보상을 말함이 아니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를 보라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연세가 꽤 되신 분이실 것이다. 성경은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면 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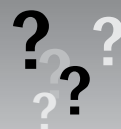
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 열매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므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손해 보는 것이 없으며, 예수 믿음은 인생 최고의 투자(?)이며, 예수 믿음은 인생의 허무와 후회를 막아내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함으로 불같은 헌신을 드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 병 간호를 위해 잠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 모친이 계시는 누님가정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삼 남매를 두었는데, 집집마다 게스트 룸이 아니라 방 한 칸을 따로 마련해서 침대와 책상과 TV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친은 언제라도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여든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 영적인 권세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아주 단순명료한 답을 얻었다고 한다. 어머니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하관식을 한 후에 남편을 묻고 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죽었지만, 남편의 시신을 흠에 파묻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하니 묻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인생이 한 평 땅 밖에 안되는 무상한 인생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집례 목사님이 재립 때에는 부활한다고 하는데 예수 재립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남편의 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롱비치의 그레이스가

죽은 몸의 부활은?

A: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성도님께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후에 얼마나 허전함과 상실감이 크시겠습니까? 당분간 남편 없는 빈자리가 크기에 많은 눈물이 눈에서 흐를 것입니다. 잘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실 일은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 현재 어디를 가셨느냐? 육신은 죽어 현재 땅에 파묻혔지만, 그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들어가신 곳은 바로 사도바울이 경험한 세째 하늘, 3층천입니다. 그곳은 천당인데 남편도 예수님이 가신 그 천당에 가신 것입니다.

천당은 보통 낙원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계 20:4-6절의 말씀처럼 하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당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살전 4: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데리고 오실까요? 땅의 육체를 부활시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혼과 재연합시켜 영육간에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첫째,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요란한 성경 구절이 살전 4: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을 하십니다. 주께서 어떤 호령을 하시까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다 일어나라!"는 호령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기상나팔을 불니다. 나팔은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전쟁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니다. 재림 때에 기상나팔을 부는 이유는 "택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마 24:30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팔소리가 나면서 무덤 문이 터지고 주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빌 3:20-21절을 보면, "거기로 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할 몸은 (1)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몸처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갈하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활 후 주님의 몸처럼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 올 수 있고 벽도 투명 인간처럼 그냥 통과하고 이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의 몸이 됩니다. (2) 육신이 병들거나 심장마비나 치매나 암 등 각종 질환이 찾아오지 않는 강한 몸이 됩니다.

이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이 땅에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어떤 인생의 자랑거리에도 대해서도 자유케 될 것이며, 마침내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최고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과 만남이 기억난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려워졌고, 강단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차 맞닥뜨려 경험할 부활의 영광과 그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 아니다. 부활의 영광은 비교불가이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열매, 부활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어떤 삶의 고통스런 문제들 앞에서도 결코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보다, 그 이후가 훨씬 더 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의 장을 열어주셨다. 죽기를 각오하니,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최고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잘 죽을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결국, 한번 지나가는 죽음의 일들 앞에서도 호소감 떨지 않고, 당연한 듯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된다. 이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죽게 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 귀하고 복된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부활절을 맞아

-사랑, 헌신, 사명의 축복-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 얼마나 복 있고 멋진 삶인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나는 자꾸만 벗어나고, 그리스도 그의 영광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 할 때에,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다. 잘 죽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서,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절제하지 못한 채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마디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신앙생활도, 세상의 삶에도 아무런 복을 누리고 얻지 못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을 보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채,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았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하고,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던 그가,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어떤 인생보다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인생의 위대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잘 죽었기 때문이다. 매일 주 안에서 잘 죽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그렇게 죽이므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에게서 살아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 사역의 동기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결인 십자가도 역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과 영생을 안겨 주기 위한 값진 고귀한 희생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삶"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가 선생이고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주의 종된 이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을 마땅한 일로 여겨야 한다.

어떻게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가? 주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다. 주님 사랑하면, 아까울 것도, 미련돌 것도, 마음 둘 곳도, 세상의 유혹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면 모든 것에서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본전 생각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될 것이다.

이 내것 되지를 않는다. 신비롭다. 아까울 것이 없어진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전적 헌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리는 헌신이 가능해진다. 사랑의 힘으로, 열매가 그러하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기대감을 채운다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것조차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는 참된 헌신이 불이 붙듯이 가능해지고, 그 헌신을 통해 유한하고 부족한 인생이었던 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생각해 보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종들에게, 주인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인의 전부를 맡기게 된다. 요셉에게 모든 가정 대소사를 맡긴 보디발의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에 본전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열매, 땅의 축복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뜻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진다. 그 헌신을 통해 인생은 위

기이다. 오직 한 가지 지독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를 더하셔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결론이 아주 독특했다. "세상 어디를 가 봐도, 예수는 누굴 위해 희생하고 믿어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해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한 가지 그 예수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잘 섬긴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땅에서도 넉넉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십자가의 최종열매, 부활

그 목사님의 간증뿐이겠는가? 십자가에서 잘 죽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슬픔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권세 있게, 강단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차 맞닥뜨려 경험할 부활의 영광과 그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 아니다.

부활의 영광은 비교불가이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열매, 부활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어떤 삶의 고통스런 문제들 앞에서도 결코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 될 것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쓰임을 받다

한국은 종선이라는 선거철에 접어들었다. 선거에 출마할 선수들을 뽑느라 연일 설왕설래가 요란하고 뼈격대는 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내가 왜 선수자격이 없느냐며 줄을 이탈하는 풍경도 적잖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을 당했다며 언론플레이를 벌이기도 한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도 점입가경이다. 그동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결에서 9전9패를 정부가 당했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만만치가 않다. 의사들의 밥그릇 쟁기에 더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쓰임의 여부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는 쓰여졌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후에 토사구팽이나 밥그릇 싸움을 따져보면 옳고 그름이 명확해질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허락함을 받은 자의 성향이나 인품, 자격은 나와

지 않다.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한다'거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말이 있다. 둘 다 긴 시간 혹은 긴 세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필요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택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거나 끈을 달아서라도 쓰겠다는 안으로 굽음이 중요하다. 세상에서는 이를 의리라고도 한다. 의리(義理)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거나 나라를 택하실 때 언제나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나,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택해 자기 백성을 삼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셨다. 택해달라거나 불러달라는 요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다. 이때 그 주체가 세상적이거나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어도 무방하다. 이의를 달거나 일인시위를 벌일 수도 없다. 약속 또는 계약은 깨기 위해 성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인 까닭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그 서약을

보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얗게 희도록 함께 하겠다며 잘떡같이 손가락을 걸지만 갈라서는 쌍이 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런 서약 또는 약속은 땅(흙덩이)에 새긴 물거품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다. 일방적으로 약속도 하시고 언약도 맺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번하신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참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천명(天命)을 하신 후 그들의 상황이나 상태 여부에 관계 없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책임을 다하셨다. 물론 징계도 하시고 진노도 발하셨다.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무거운 벌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한 교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사망이기에 그 사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구원자)가 되게 하여 세상에 보내셨고 그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책

임을 다하셨다. "나는 성공하는 것보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존 맥아더나 "죽어 슬며시 버려지기보다 쓰임을 받아 많은 토지 목사의 신앙을 깊이 음미할 가치가 곧 쓰임이다. 쓰임은 곧 알아줌과 연관이 된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쓸모가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당에서도 공천할 것이고 설사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이 된다고 해도 그는 당선되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거침없이 뱉어내는 인사가 있는 듯하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주객이 전도된 말이 나온다. 의사의 필요는 환자고 환자의 필요는 의사다. 그런데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병이 의사의 허락을 받고 발생하는가? 아무리 세상이 말세로 치닫는다 해도 사람에게에는 도(道)가 있다. 가장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사람을 살리겠다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였

다면 말을 조심해서 하고 그

마음 또한 사람다워야 한다.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이요 설사참신도(舌是斬身刀)며 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 하면 안신처처우(安身處處宇)-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라는 옛말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쓰기로 택하신을 절대 변이지 않으시나 세상은 자기가 한 바의 여부에 따라 쓰여지기도 버려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사순절의 거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며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채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만신창이가 되시도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으시고서 택하신 만인을 향해 피 묻은 그 구원의 손을 거기에 내밀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자. 닳아 없어지도록 쓰여지기를 다짐하면서,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없다는 것이 맞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15세 성전환 후회' 막는다...美 졸업이 통과되는 이 법

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 자유 보호법' 등 동성애와 반기독교 물결에 맞서는 일명 '거룩한 방파제' 법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22일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 24번째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사춘기 차단제 및 신체 절단 수술)을 전부 혹은 일부 금지하는 주로 등극했다. 해당 법의 골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처방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같은 날 집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 자유 보호법(SB503)에 서명했다. 이 법의 골자는 공립대학 캠퍼스가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를 막거나 학생 단체를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동아리의 지도자로 기독교인을 뽑는 것을 막으려는 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이 법을 고치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동아리 등 학생단체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기존 법을 '조직(학생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은 조직의 신념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스펜서 쿡스 유타주지사 역시 지난 21일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종교 자유 보호법(SB150)에 서명했다. 종교 행사를 집행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현지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사춘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의사의 권유로 15세의 나이에 유방절제술 등 성전환 수술을 받은 클로이 쿨(20)씨는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을 받고 나면 행복해진다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내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 가라앉았다"며 "미성년자 때 받은 성전환 수술은 내 심신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

의료제도에 대한 불신과 자살 충동, 후회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성경 앱 사용 늘고 있지만... "손때 묻은 성경책 포기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대중화로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교회에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는 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예배당에 성경책을 비치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교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민에 응답하는 글이 지난 23일 미국 북음연합(TGC)에 올라왔다. 크리스 폴스키 미미주리주 트리니티장로교회 목사가 쓴 글 '성경책을 포기하지 마세요'. 폴스키 목사는 이 글에서 실물 성경의 유익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성경 본문에 대한 시각적 기억 생성'이다. 글이나 설교 등에 인용할 성경 구절 출처를 잊더라도 수년간 사용한 성경책을 펼치면 간간 표시해둔 게 있어 각 장의 주요 구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설교를 들으며 호기심 가득한 탐험이 가능한 것'과 '메모 작성에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설교를 들으며 얻는 통찰을 바탕으로 본문의 관련 성경 구절을 읽거나 메모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는 성경 앱보다 성경책이 더 유리하다. '모바일 장치로 인한 방해 제한'에도 탁월하다. 예배 중 성경책을 사용하면 이메일 등을 확인하려는 유혹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음세대에 성경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동시에 '성경을 영적 유품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익이다. 폴스키 목사는 "대학생 아들의 요청으로 30년간 사용한 성경책을 물려줬다"며 "책 속 수십 개의 포스트잇과 그 안에 적힌 글을 보며 믿음을 지키는 일과 신앙 유산의 중요성을 아들이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때 묻은 성경은 선대의 신앙에 대한 증거다. 지금 쓰는 성경책 또한 다음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美플로리다주 다리 붕괴 "실종자 7명... 테러 징후 없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항만을 가로지르는 길이 2.6km의 대교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26일 화물선 충돌로 붕괴됐다. 사고 당시 다리를 지나던 차량들이 물에 빠지면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제임스 윌리스 볼티모어 소방서장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달리'호가 다리와 충돌했다. 사고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고, 그중 1명은 중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5시간여 뒤인 오전 6시30분까지 파악된 실종자 수는 최소 7명이다. 윌리스 서장은 "음파 탐지기를 통해 물속에 잠긴 차량들을 감지했다"며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인명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오전 1시28분쯤 발생했다. 볼티모어에서 출항해 스리랑카로 향하던 약 300m 길이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사고 다리와 충돌했다. 다리는 충돌 지점부터 순식간에 무너졌다. 사고 다리는 1977년 볼티모어 퍼텍스코강 하구에서 미 동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695번 고속도로의 일부로 개통됐다. 붕괴 전까지 볼티모어 내 최장이었고, 삼각 뼈대 구조인 트러스교로는 세계에서 3번째로 긴 다리였다.

이번 사고로 695번 고속도로 양방향은 이날 통제됐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관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볼티모어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처드 윌리 볼티모어 경찰서장은 "테러나 의도적인 충돌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사고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아직 악의적인 사건으로 볼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이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좌절됐다. 당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SNS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계정 보유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자녀가 SNS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디샌티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은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1월부터 SNS 회사들은 14세 미만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폐쇄해야 하며 이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메타, 페이스북, 스냅챗 등 여러 SNS는 이미 13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입법자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생년월일을 속여 SNS에 쉽게 가입해왔다"며 기존 SNS 회사들이 추진해온 방침의 허점을 짚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관련 법률 중 가장 강력한 미성년자 SNS 접속 금지 조치"라고 보도했다. CNN은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야간소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미성년자 SNS 계정 개설에 부모 승인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연방법원이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중지시켰다.

파리올림픽 앞둔 프랑스 'IS 테러' 비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총격·방화 테러가 발생하자 올해 하계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가 보안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모스크바 테러를 계기로 엘리제궁에서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우리를 괴롭혀온 (IS)의 위협을 고려해 '비지피라트'(경계경보 체계)를 최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IS는 그동안 프랑스를 주요 테러 표적으로 삼았다. 2015년 11월 파리 일대에서 연달아 발생한 총격·자폭 테러가 대표적이다. 당시 IS 대원들은 축구장·식당·주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린 데 이어 록밴드 공연이 열린 극장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폭했다. 당시 130명 넘게 사망하고 400여명이 다쳤다.

올해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파리올림픽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다.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안과 관련한 프랑스 당국의 우려가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마서 8:28이 없다면

(2면에서 계속)

그렇기에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모든 상황은 그분이 자신 의 좋은 계획, 즉 완전한 목적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데 사용하시는 원재료일 뿐이다.

하나님의 특기는 선에서 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선을 가져오는 것이다. 로마서 8:28은 내가 눈물 가운데서도

그를 신뢰하면 내게 반드시 웃을 이유를 주실 것이라고 부드럽게 속삭인다. 고통 속에서도 그를 신뢰한다면, 그분은 내 입술에 찬양을 가져다주실 것이다. 슬픔 중에도 그분을 신뢰한

다면, 그분은 나중에 그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얻은 게 결국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메마른 사막에 핀 귀한 꽃, 날카로운 가시에 맞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건재한 부드러운 꽃잎을 보여 주실 것이다. 모든 검은 구름 뒤에 보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메마른 사막에 핀 귀한 꽃, 날카로운 가시에 맞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는 웃는 얼굴이 숨어있다. 누구일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다.

by Tim Challies, TGC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88. 정상원(1882-1957)

정상원은 1882년 8월 25일에 한국 경상남도 진주에서 아버지 정봉우와 어머니 박문C 사이에서 태어났다. 진주는 조선 시대 때 경상도 최대 도시로서 경상남도 관찰사가 상주하였으며 그가 거주할 때만 해도 경상남도 행정의 중심지였다. 22세가 되었을 때인 1905년에 진주에서 거주하였는데 그해에 노동 이민의 꿈을 안고 아내를 한국에 두고 홀로 제물포를 떠나 그해 4월 1일에 일본 고베에서 하와이 노동 이민선 '코리아'에 승선하여 그달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로마자 알파벳으로 Chung Sang Won 또는 Chun S.W. 또는 Chung S.W로 통했다.

하와이에 온 지 15년이 되던 1920년에 정상원은 하와이섬 부나에서 인구 조사에 응했다. 노동 이민 계약을 벗어난 그는 그해에 정원사로서 자영업업을 하고 있었다. 그해 하와이섬에는 힐로, 가날아유, 하갈나우, 파팔노아에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 힐로가 가장 가까워 힐로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니었다. 그 후 정상원은 정원사를 그만두고 하와이섬 부나에서 북쪽으로 찾길을 따라 30마일 떨어진 작은 섬의 하갈나우 농장으로 이주했다.

KOREAN WORK	
Ministry on Island of Hawaii	Kwan M. Lee
Ministry on Island of Maui	Choon H. Lim
Ministry on Island of Kauai	Soon Hyun
Fort Street, Honolulu	D. W. Lim
Waialua, Oahu (Director of religious activities)	Henry D. Lee
Waialua, Oahu	C. H. Ahn
Waipahu, Oahu	H. S. Hong
Waialua and Kahala	H. S. Hong
Connected with Y.M.C.A. Work	E. C. Chung
Hakaha, Hawaii	Supplied by S. W. Chun
Lanai City, Lanai	Supplied by S. W. Chun

1935년 하와이 선교연혁 (아래에서 두 번째가 정상원이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혁은 정영운과 함께 정상원을 이관목 목사가 한인 순회 선교사로 파송된 하와이섬의 하갈나우 지역으로 파송하여 교회 개척을 계획하였다. 정상원으로서의 처음 파송을 받는 영광의 한 해였다. 그런데 그해 하와이 선교 연혁에는 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듬해 하와이 선교연혁에는 하와이 선교연회 소속 지방전도사와 권사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하갈나우 지역에 지방전도사와 권사로 파송한 자를 소개하였는데 이들을 구분하지 않아서 하갈나우에 파송된 정상원 뿐만 아니라 장용운도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는지 권사로 파송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교회 개척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권사로 파송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상원이 처음 파송되던 1931년 하와이 선교연회에는 하갈나우 지역 보고가 전혀 없어서 지역 형편을 가늠할 수 없다.

1932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된 제 27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하갈나우 교회의 교세에서 정상원 등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달에 보고된 교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고서에 없었던 하갈나우 교회가 기재되었고, 유아세례교인이 4명 있었고, 성인세례교인이 1명 있어서 초라한 통계였지만 이관목 목사가 섬기던 8 교회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세였다. 그러나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에 속한 유아세례교인이 396명 있었고, 성인세례교인이 170명이었으므로 하갈나우 교회는 작은 교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원임교인으로 받은 자가 76명이나 되어 교회의 미래가 밝

았다. 그달에 정상원은 재차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았다. 전도사인지 권사인지가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권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이다. 하와이섬 한인 순회선교사로 역시 이관목 목사가 파송을 받았다. 1933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호랑 제일감리교회에서 제28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열렸는데 그달에 보고된 하와이 선교연회 교세 통계를 찾을 수 없어 정상원의 1년 사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필리핀인 사역과 일본인 사역과 함께 한인 사역도 여전히 활발했다. 하와이섬 한인 선교사로 이관목 목사를 파송하였고, 마위섬 한인 선교사로 임준호를 파송하였으며, 가와이섬 한인 선교사로 현 순 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리고 6명의 한인 목사가 파송을 받았는데 최윤관은 호랑 제일감리교회의 전신인 포스 스트리트 한인교회에 파송을 받았고, 이현리 목사는 오아후섬 와일누아 지역 기독교 활동 디렉트로 파송을 받았으며, 안창호 목사는 오아후섬의 와와와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았고, 홍한식 목사는 오아후섬의 와이파후, 와일누아 그리고 가후구에 있는 한인감리교회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으며, 정외조 목사는 YMCA사역을 위하여 파송을 받았고, 장용운은 하와이섬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임시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달에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파송된 자는 하와이섬의 한인 선교사로 이관목이 파송을 받았고, 이전과는 달리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장용운을 임시 목사로 파송하였다. 그달에 파송한 전도사나 권사의 명단이 아예 소개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정상원이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이다.

제29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34년 3월 1일부터 그달 5일까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그달에 보고된 교회 통계에서 정상원이 지난 1년간 사역한 하갈나우 교회 통계를 볼 때 상당히 성장하였음을 알게 된다. 유아세례교인은 없었지만, 학습교인이 34명이었고, 성인세례교인은 26명이었고, 주일학교 직원과 교사가 2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6명이었으며, 웨워스 청년회 고등부에 등록된 학생은 1명이었지만, 웨워스 청년회 소년부에 등록된 학생은 23명이었으며, 세계 봉사회에 10달러를 헌금하였다.

그달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정상원을 4번째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임시 사역자로 파송하였다. 그런데 그가 파송 목사 명단에 있지만 이전에 권사로 파송되었으므로 이해에는 임시 목사가 아니라 지방전도사로 파송된 것으로 보인다. 파송된 하와이섬 한인 선교사는 역시 이관목 목사였다.

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30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해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20명의 정회원 이 있었는데 이중 한인 목사가 안창호, 홍한식, 현 순, 이관목, 임준호, 임두화 등 6명이었고, 안창호는 한국 연회에 소속되어 하와이에서 10번째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홍한식은 캘리포니아 연회 소속으로 28번째 사역하였으며, 현 순도 캘리포니아 연회 소속으로 13번째 사역하였고, 이관목도 캘리포니아연회 소속으로 23번째 사역하였으며, 임준호도 캘리포니아 연회 소속으로 23번째 사역하였고, 임두화는 조선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하와이에서 3번째 사역하였으며, 정외조는 캘리포니아 연회소속으로 2번째 사역하였다. 그들은 하와이 선교연회 산하에 있는 내지선교/교회확장부, 캘리포니아 연회 관계부, 교육/주일학교/웨워스 청년회, 성수주일부, 협력전도부, 절제부, 성경반포부, 헌의부 등 8개 부에서 활동하였다. 순회원은 한 명뿐이었는데 한국인 정외조 목사였으며, 지역 순회원 2명 중 한 명이 이현리 목사였다. 그래서 하와이 선교연회 정회원과 순회원과 지역 순회원을 합친 23명 중 한인 목사가 8명이어서 35%에 해당했다.

그달에 모인 하와이 선교연회는 작년과 같이 하와이섬 한인 선교사로 이관목 목사를 파송하면서 정상원을 5번째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고, 이전과는 달리 그를 포함하여 2명의 지방전도사도 파송할 만큼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가 성장했다.

미국 북감리교 제31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이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교세에 따르면 웨워스 청년회와 고등부에 등록된 학생은 10명이었고, 웨워스 청년회 중등부와 소년부에 등록된 학생은 13명이었고, 헌금도 성장하여 작년에 항목이 없던 주일학교에 5달러를 지원했고, 세계 봉사회에 작년보다 6달러가 많은 16달러를 헌금하였다.

제31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작년과 같이 하와이섬 한인 선교사로 이관목 목사를 파송하면서 정상원을 6번째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다.

미국 북감리교 제32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1937년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호놀룰루에 있던 해리스 메모리얼 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그동안 섬멸로 한인 선교사를 파송하던 체제가 축소되어 마위섬과 가와이섬에만 한인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마위섬 한인 선교사로 임준호 목사를 파송하였으며, 가와이섬 한인 선교사로 현 순 목사를 파송하였고, 하와이 한인 선교사직은 아예 없어졌다.

제32회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는 교인과 주일학교와 재정에서 다소 성장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아세례자가 1명 탄생했고,



세계 제2차 대전 징병서류 학습교인은 36명이었으며, 유아세례자로서 세례 교인 파송을 받는 어린이가 26명이었고, 성인 세례자가 14명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2명이었고, 등록한 학생은 36명이었으며, 이중 평균 29명이 출석하였고, 웨워스 청년회 고등부에 등록된 학생은 16명이었고, 1년 교회 경비가 14달러였고, 목사 사례비로 30달러를 헌금하였고, 선교사 보조부에서 지급된 비용을 제외한 지역 후원금이 44달러였고, 세계 봉사회로 10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로서 정상원이 하갈나우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 중 가장 성장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제32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정상원을 파송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는 파송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정상원은 1931년 2월부터 1937년 2월까지 6년 동안 하와이 선교연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하갈나우 교회에서 권사와 지방전도사로서 활동하였다.

정상원은 1940년에 하와이섬 인근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의 하마구아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사망 수수발에서 한 주간에 48시간을 노동하면서 하와이에서 태어난 17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의 집에 57세의 홍경택과 같은 나이의 박 두 그리고 53세의 김숙희 등 3명의 독신 남자 한국인이 하숙하고 있어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이곳에 한인교회는 없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필리핀인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에 출석했을 것 같다.

정상원은 60세가 되던 1942년에 세계 제2차 대전 징병 서류를 제출했다. 그가 친히 작성한 징병 서류에 따르면 '하와이 농업 1호 회사 산하의 하와이섬 파탈나에 있던 지역 농장에서 노동하면서 한인촌 11호 집에서 거주하였고, 전황기는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도 한인교회가 없어서 필리핀인 교회에 출석했을 것 같다. 68세가 되던 1950년에 정상원은 인구조사에 응했다. 그는 하와이섬 남 곶에서 두 손녀를 둔 아들 가정에서 거주하였는데 1살 된 손녀를 돌봐주고 있었을 것 같다. 이곳에서도 한인교회는 없었다. 정상원은 1957년 1월 21일에 향년 7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와이섬 와이래에 있는 오션뷰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정상원의 묘비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h4>뉴욕갯세마니교회</h4> <p>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 (월-토)</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양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4>뉴욕양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 (월-금) / 6:00 (토)</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8:00</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평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전 1:30 세백기도: 오전 5:55 (월-토)</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요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발원세례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 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 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20분 세백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월-토)</p>	<h4>은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토) 오전 6:0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93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6:00 (월, 금, 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45</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요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요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 45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2:00 (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h4>하와이 행복한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 (화-토)</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양)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산 소망

봄이다. 뒤 뜰 작은 화단의 흙을 고르다 보니 무슨 꽃인지도 모르는 구근에서 싹이 돌아난 것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작년에 화분에 담겼던 꽃이 진 후에 구근을 땅에 심은 것에서 싹이 튼 것 같았다. 별 기대 없이 심었는데 싹이 나오다니 반가웠다. 일단은 싹이 난 구근을 조심스럽게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 며칠 후에 꽃대가 쭉 올라온 것은 하아 신스였다. 그리고 작은 하아신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생각했다. 하아신스 꽃이 진 며칠 후에는 죽은 것 같았던 포도나무에 새 잎이 돋았다. 몇 년 전 뒤 뜰에 심은 포도나무에는 두 해 정도 포도가 열렸다. 여름을 향해 가면서 아주 작은 포도알들이 점점 열려 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재작년부터 일만 무성하게 담을 타고 뻗어가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런대로 가을이 되면 담장에 다니러 포도 잎들이 윤치가 있어서 놔두었는데 지난 겨울 한국에서 불려온 오순 형부가 포도나무 가지들 싹둑싹둑 다 전지하셨다. 몇 달만 남겨 놓고 썰렁하게 서 있는 나무는 볼 품도 없을 뿐더러 전혀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포도나무를 아예 베어버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 포도나무에 새 잎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살아 있었구나." 여러게 올라온 잎을 보며 반가운 인사말을 건넨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에 새로 돌아나는 잎들과 들꽃들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가장 부활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이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실물교육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용히 땅속에 묻혀 있던 씨앗들이 봄이 오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겨우내 마른 잎을 다 떨근 채 죽은 듯이 서 있던 나무들에 연녹색 어린 새싹들이 돌아나는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씨앗이 썩어서 형태가 다른 식물로 새롭게 자라나는 자연 현상을 비유로 들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땅에 묻힌 씨가 죽은 것 같으나 죽은 씨앗에서 형태가 다른 새싹이 돌아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현상 뒤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래서 봄이 올 때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단순한 부활의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가치관을 형성한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놀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건너편의 삶,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본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실 알 수 없는 신비한 형태의 몸을 입을 그 날이 있을 것을 알고 고대하기 때문이다.

봄과 함께 부활절이 다가온다. 며칠 전 집으로 초대된 손님들이 사 온 화분에 담긴 꽃들이 집 안으로 봄을 불러들였다. 프리지어, 톨립, 이름 모르는 작은 꽃... 각각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활짝 핀 꽃들이 시들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년 봄에 땅을 뚫고 얼굴을 내밀 새싹을 기대하며 꽃이 진 구근들을 뒤 뜰 한 칸에 정성껏 심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안에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lpyun@apu.edu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10장 로마 가톨릭교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mental prayer) (1)

* 이 내용은 박흥규 목사의 번역,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인용 및 수정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명상에 가까운 것)를 더욱 탁월한 기도로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을 '순결한 영적 기도, 조용히 평안한 가운데 하는 명상으로서, 때때로 우리의 인식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며, 외적인 억압 없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며, 열정을 죽이고, 의지의 영적인 감정들을 완벽하게 순결해지도록 만들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더 유익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아름다움과 은혜와 다른 탁월한 속성들에 대한 목상이 없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는 바른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예배' 이어야 한다. 기도에 대해 그들이 제시한 주장은 단지 환상과 상상력의 결과이지 성령의 조명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 전파된 복음에 대처하기 위해 명상가들이 만든 개념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적으로 목상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으며(히 5:7), 다윗은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하셨다고 말한다(시 22:1). 그러므로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장황하고, 시끄러우며, 충동적이고, 야만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인위적이며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방식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오래, 때로는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우리 주님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울부짖으며, 말로써 자신들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비적으로 고집어낸 적절한 표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어거스틴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성은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더 간절해지게 된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과 뜻을 구체적으로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축복이다. 그럴 때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부하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 수 없고, 아뢰더라도 빛나게 된다. 또 우리는 기도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 때 사탄의 격렬한 유혹과 방해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성으로 목상만 해서는 결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감정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열망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냄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의 표현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우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은 우리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 둘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이런 기도는 케이크 고도들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1.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탁월하다는 주장

1)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내적으로 실질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로마 가톨릭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기도문을 읽거나 노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이 세련된 방법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순결하심과 모든 거룩한 속성들을 가장 크게 경멸하는 것이다. 주문을 읽을수록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반복하거나,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말은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면서 주어진 말만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상상해 낸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직접 경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추측하여 기도의 규칙이나 예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둘째,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성경의 규칙이나 예와 일치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일 뿐이다. 그들은 지성이나 이성의 활동 없이 의지나 감정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도할 때 사랑, 기쁨, 안식, 안식, 만족함과 같은 의지와 감정을

2)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다

우리 기도의 목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목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들에 파묻혀 자신을 전적으로 잊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거리감을 느끼며, 영원한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무한히 자신을 낮추어 드림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영혼은 황홀경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에 빠지는 것도, 이성과의 지를 넘어서서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영혼의 기능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제대로 질서가 잡히며,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 안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가득차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혹은 영적인 기도는 성경을 통해 전혀 지지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도에 대해 합리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비록 소리를 내어 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실제로 그분도 소리를 내서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Diego,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나누고 싶은 비밀, 부활

어떤 비밀은 숨겨져야 가치가 있지만, 또 어떤 비밀은 알려졌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마술사가 마술 행위를 펼칠 때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마술의 방법을 공개하고 마술 공연을 하면 마술의 재미, 흥미, 신비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술은 마술의 방법이 숨겨졌을 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취색을 가진 고려

청자는 만드는 방법이 여전히 비밀에 있기에 지금도 여전히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재료들의 효능을 알게 되면 재료들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재료의 효능을 알지 못하고 먹은 것이 없어서 먹었던 산나물들이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산나물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비밀이 알려질 때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은 비밀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알려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숨겨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졌을 때 진정한 가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깨닫기 전까지는 숨겨진 비밀이면서, 또한 깨달은 사람들이 전해야만 하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비한 비밀을 증언하고, 부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LA에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보여주고 싶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싶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LA에 있는 숨겨진 명소, 숨은 맛집들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LA에 방문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찾아가지 않는 명소입니다. 글렌데일시에 있는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공원(Forest Lawn Memorial Park)입니다. 글렌데일의 포레스트론 메모리얼공원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Crucifixion)와 예수님의 부활(Resurrection) 장면이 그려진 명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폴란드 화

가 잔 스키카가 그린 그림으로 길이가 무려 59.44 미터에 높이가 13.72 미터나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국화가 로버트 클락이 1965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나는 아버님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이 성화를 어릴 적부터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고 싶고 나누고 싶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숨겨진 비밀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누고 싶은 비밀입니다.

희미하게 전투의 결과가 전달됩니다. "British defeated! 영국 패배!" 이 처음 소식을 목격한 사람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를 뚫고 나타난 배에는 이란 깃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British defeated France! 영국이 프랑스를 패퇴시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Jesus defeated! 예수님 패배"로 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Jesus defeated Satan! World! 예수님이 마귀를 패퇴시키시다! 세상을 이기시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말씀들과 행위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옳으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성도는 이 큰 부활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시렵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승리하며, 부활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gmail.com



재림에 대한 상상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 맛을 보여주고 싶은 음식이 있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만 혼자 알아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보여주

나폴레옹의 몰락과 유럽의 100년 평화를 가져오게 된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 간에 벌어진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영국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전투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를 가로질러서 배 한 척이 영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안개 속에서

제5차 법과교회 세미나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주제로 열려

태평양법률협회, 교회와 부모 협력하여 홈스쿨링 기능토록 도와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와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심삼은 목사)가 공동주최한 제5차 법과교회 세미나가 '종교자유와 부모 권리'라는 주제로 18일(월) 오전 9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강사 브레드 대쿠스 박사는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성전환자가 되거나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공립학교에서 반영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학교가 부모 몰래 학생들의 성전환을 유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 중에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시건 등에서도 이와 관

련된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쿠스 박사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므로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보낼 수 없는 재정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재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민 가정이라면 영어를 잘 배우기를 원하는데 홈스쿨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와 부모가 협력하여 다른 이들도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라고 말했다. 대쿠스 박사는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진보적인 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기는 것이 우려되어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많다"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지를 생각하고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입법자들이 불리한 법을 만드는 것을 막고 입법자들이 바른 법안을 제시하고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서의 권리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두 번째 강의는 마이클 페퍼 변호사(트리니티대학교 교정에서 복음 전도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소개하고,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주제로 열린 제5차 법과교회세미나 강사들

목회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공공 장소에서 소풍물에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할때 캘리포니아의 소풍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라며 "소풍 물은 공공장소로 간주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이며 시큐리티 가드가 막을 수 없

다. 다만 소풍물 내에 있는 상업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페퍼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성경관련 클럽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유할 수 있다"며 "클럽에 목회자를 포함한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 단 점심시간 등 학과 수업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을 할

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교육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주시해야 한다. 특별히 이사회 때 신앙에 반대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게 의견을 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송사나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탈렌트 쇼 참가자들이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경기에서 코치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 어부 담당)가 '캘리포니아주 성교육과 부모권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태평양법률협회에 관한 문은 rju@pj.org, (213) 284-4202 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기사관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설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를 4월 7일(주일) 오후 5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 문의: 718-886-4040

MMC담대한국교회, 설립감사예배
 MMC담대한국교회(담임 허장길 목사)는 설립 감사예배를 4월 21일(주일) 오후 6시 본교회에서 드린다. 주소는 315 W 22nd St, New York, NY 10011이다.
 ▲ 문의: 516-410-4121

뉴욕모자이크교회, 이전감사예배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는 이전감사예배를 3월 31일(주일) 오전 7시30분과 10시30분 새로운 예배처소인 155-14 35th Ave., Flushing, NY 11354에서 드린다.
 ▲ 문의 718-352-6962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무료전화 법률 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4월 2일(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무료 전화 법률상담을 개최한다. 상담예약은 3월 31일(주일) 오후 2시까지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핫라인 이메일 kalagny.pro-bono@gmail.com 또는 833-525-2469으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 833-525-2469

2024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한국일보 주최로 하는 2024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Young Adult Service Program-YASP)에 참가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YASP는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7주간 실시된다. 참가 대상은 뉴욕시 소재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인 청소년이다. 접수기간: 5월10일까지이다.
 ▲ 문의: 뉴욕한인봉사센터(yasp@kcsny.org), 718-939-6137

영생장로교회, 특별집회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마크 존스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4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금, 토, 일 오후 7시30분, 주일 예배시에 특별집회를 제1 예배실에서 갖는다.
 ▲ 문의: 215-542-0288

“사순절 고난 주간, 각 교회에서 특별 새벽예배 드려”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 각 교회는 3월 25일(월)부터 3월 30일(토)까지 새벽 5시30분, 6시에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회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뉴욕장로교회

△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나를 죽도록 사랑한 그 십자가’란 주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달려 계시면서 7마리의 유언 말씀(가상철언)을 하루하루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진 목사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3-37)’ 제목을 통해 “은 무리로부터 쫓아 부어지는 온갖 조롱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행위와 말씀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다. 그 기도가 십자가의 깊은 영성의 자리로 가게 하는 첫 관문이라며 먼저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

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스턴장로교회

△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었다. 장성철 목사는 ‘부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막 14:66-72)’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성철 목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일찍 기억하고 깨닫는 데 더 순발력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순발력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

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체험을 손으로 적고 눈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오래 간다. 고난 주간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록을 만들어보라”라고 권했다.



퀸즈장로교회

△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제37회 사순절 서원새벽기도회를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2월 19일(월)부터 3월 30일(토)까지 새벽 6시에 진행했으며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남기신 것들’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예수님이 남기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깊이 묵상하

는 고난주간을 맞이했다. 김성국 목사는 ‘비유를 남기시다(마 22:1-14)’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 초청 앞에 거절하는 자, 참여하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모습을 살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예복이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십자가를 붙잡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다. 이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됨의 삶을 사는 당연한 자들이다. 또한 이 택하심은 주님의 은혜이다. 은혜 받은 자는 충만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군가를 주의 종전 앞으로 데려오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각 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새벽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를 다시금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 제78회 정기노회 사진 촬영했다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 제78회 정기노회

노회장 오영환 목사, 부노회장 김성훈 목사 추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미노회(노회장 오영환 목사)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해리스 핫스프링스에서 제78회 노회소속 목회자와 내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전 노회장 천영일 목사(밴쿠버 주바라기교회)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 예배는 이세연 목사(에드몬튼제일장로교회)의 기도과 함성주 목사(앵커리지열린문장로교회)의 성경봉독, 오영환 목사(칠리악기쁨의교회)의 설교, 김동하 목사의 성찬식, 박수준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환 목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설교를 통해 “가미노회가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닌 공동체,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자”고 권했다. 이어 각부 보고가 있는 후, 오영환 목사(칠리악기쁨의교회)가 노회장으로, 김성훈 목사(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가 부노회장으로 각각 추대됐다.

이날 진행된 회무처리에서는 에드먼튼 소망교회(주석환 목사)의 장로 1인 청원, 리치먼드 주안에 교회(이재열 목사)의 노회 가입 청원과 동 교회 홍요셉 전도사의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김성훈 목사)의 장로 3인 청원, 총회 신학교 KAPC-RPUS 밴쿠버 캠퍼스의 장로 코스를 마칠 경우 장로교회를 면제하는 청원 등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또한 18일 시행된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한 홍요셉 전도사의 축도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안건으로 총회신학교 KAPC-RPUS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노회 회원 명단에 추가하는 의견과 노회 상회비 증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노회에서는 이정현 총장(KAPC 개혁장로회대학)의 목회자 특강으로 목회자의 소명 및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상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칠리악기쁨의교회에서 풍성한 점심, 저녁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여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기사제공: KAPC 가미노회)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성경 묵상 여행’ 출간

배성현 목사의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성경 묵상 여행’이 출간됐다. 본서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을 찾고 누리며 나누기 위한 것으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쉽도록 구성하고 전 연령대가 누구나 성경 묵상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저자 배성현 목사는 “전 연령대가 적극 참여하여 묵상과 삶에 공유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고 있으며 쉬운 성경 본문부터 시작하여 시편, 잠언, 산상수훈을 다룬다”며 “그룹 모임에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

는 신선한 질문을 제시하므로 참여자들은 성경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본서는 1부,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의 원리와 본문’, 2부, ‘성경 본문의 주제를 그림을 그려보며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기’, 3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사진으로 찍고 글을 써보는 연습’으로 구성됐다. 한편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성경 묵상 여행’ 출판 세미나가 4월 8일(월) 오전 10시 뉴저지 시온교회(원도연 목사 시무)와 4월 15일(월) 오전 10시 뉴욕



실로암교회(조대형 목사 시무)에서 각각 개최된다. 책 주문 및 세미나 요청 문의는 201-989-6091, Daniel.Bae153@gmail.com으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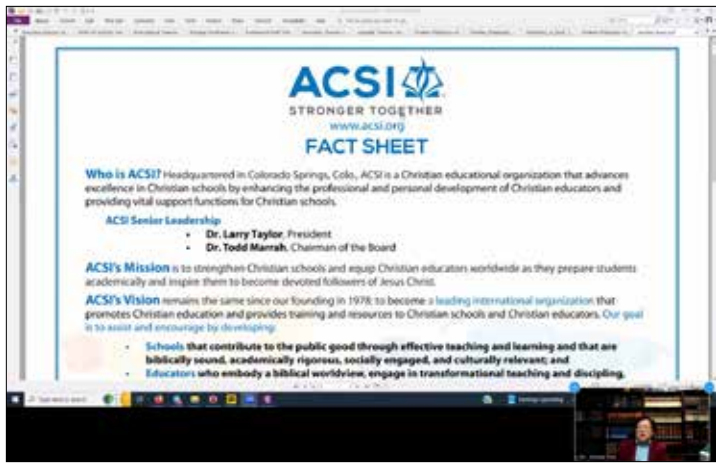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교육선교를 위한 교사자격증 세미나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교육선교를 위한 교사자격증 세미나

ACSI 자격증교육, 전문 사역자로 만드는 데 중점

교육선교를 위한 ACSI 교사 자격증 세미나가 그레이스글로 벌버전스쿨(대표 제임스 구 교수) 주최로 19일(화) 오후 8시에 줌으로 열렸다.

이날 ACSI 교사자격증 세미나는 제임스 구 교수가 강사로 나서 ACSI교사자격증 신청에 대하여 강의했다. 구 교수는 “교사자격증은 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이다.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는 전 세계 25,000여 개 학교가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 교장, 교감, 교사 등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교사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다.

ACSI 자격증 과정은 킨더부

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며, 자격증 소지자 중 신학교 학위수여자들은 성경과목을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ACSI 자격증은 교사를 전문 사역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인 교육 방법부터 현대 교육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교육 철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과목이며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독교 교육이 필수적”이라 말했다.

자세한 것은 (949)667-0264, icmm@churchhomepage.org 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챔버코랄 초청 사순절 찬양예배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현장 찬양으로 재연’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는 라크마챔버코랄(지휘 윤임상 교수)초청, 사순절 찬양예배를 24일(주일) 오후 5시 ‘십자가: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윤임상 교수는 “사순절을 지내며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경배와 찬양, △십자가 그 수난의 현장들, △인도와 보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등의 섹션으

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각 섹션마다 윤임상 교수의 설명이 더해져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You are Mine’, ‘가기 너 있었는가’, ‘갯세마네의 기도’, ‘어린양의 침묵’, ‘십자가(고난의 길)’,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너는 내 것이라’, ‘예수’ 등을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양유진과 김미진, 테너 오위영 등의 곡중 솔로와 듀엣 무대가 있었다. 이날 찬양예배는 ‘주기도문’을 마지막 곡으로 선사한 뒤 고광선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챔버코랄 초청 사순절 찬양예배가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달라스중앙감리교회 2024부흥회에서 김다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달라스중앙감리교회 2024부흥회

“새 역사를 이루실 것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자”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는 2024부흥회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지난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17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는 최원봉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다위 목사가 ‘어둠 속 등불로 부르시다(삼상 3:1-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다위 목사는 “본문 사무엘상이 쓰여진 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흡사하다”며 “말씀은 빛이다. 말씀을 통해 어둠을 비추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영적으로 어둠이 짙어졌고 내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영적 어둠은 오늘날에도 발생되어 미국은 물론, 멕시코와 한국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동성부모가 많아졌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 신앙전수가 제대로 되

지 않아서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복미와 남미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 사시기 시대처럼 되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거 같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다. 어두움속의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목사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제사장의 신앙은 과거에만 좋았던, 과거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신앙이 아닌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 바란다. 사무엘이 응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가정의 등불로 정치교육사회 문화영역에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며 순종하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김다위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배연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게시판

제5회 KFAM 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골프토너먼트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엄)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위탁 아동 및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KFAM 골프 토너먼트를 4월25일(목)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 클럽(1 Industry Hills Pkwy, City of Industry, CA 91744)에서 개최된다.

▲ 문의: sslee@kfamla.org, (310)618-2222, (213)235-4869

고든콘웰신학대학원, 2024년도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고든콘웰신학대학원(총장 스티븐 선퀴스트 박사)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D.Min)이 2024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분학위 과정은 전문적 현장 목회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신학교육으로서 코호트 중심의 맞춤형박사학위를 제공한다.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의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은 총 3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1년차는 GCI 사역 역량 프로그램(www.GCI-Korea.org)으로, 이후 2년 차와 3년 차는 각각 2주간의 집중 강의와 논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본 박사 과정은 사역 중 학업을 최적화 하기 위해 전 과정 국내에서 진행된다.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의 목회, 혹은 사역 경험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2024년도 모집 정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지원 마감은 7월 30일이다. 지원 및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ctskdmin.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gcikorea@gordonconwell.edu

LA카운티 정신건강국 'Women and Girls Leadership and Wellness Summit' 행사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은 3월 Women's History Month를 맞아 CalMHSA가 함께 'Women and Girls Leadership and Wellness Summit' 행사를 30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VENT DECK at LA LIVE(1005 Chick Hearn Ct Lot W, Los Angeles)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은 선착순 제공된다.

▲ 문의: (213)523-9100

LA 베이직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LA 베이직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4월 7일(일) 오후 4시에 1304 Cochran Ave, LA에서 열린다. LA 베이직교회는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이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이선기 목사와 백미진 사모가 섬기고 있다.

▲ 문의: (213)255-0521

알림

다음 주 신문(4월6일 자)은 부활절 정기휴간일로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결교회 이성수 담임목사 취임 및 안민구 장로 추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나성교회’ 이성수 담임목사 취임식

“오직 섬기는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미주성결교회 모교회인 LA 지방 나성교회는 지난 3월 17일(주일) 오후 4시 제6대 담임목사 이성수 목사 취임 및 안민구 장로 원로장로 추대식을 가졌다.

치리목사 김종호 목사(연합선교교회)의 집례로 시작된 취임식은 지방회 부회장 최은호 장로의 기도, 서기 이병역 목사(뉴송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재카카 오 목사(하와이 갈보리교회)가 ‘전도하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종호 목사가 취임하는 이성수 목사를 소개

하고 지방회장의 인도로 서약 후 치리권을 부여하고 담임 취임을 공포했다.

미주성결교회 교단 총무인 김시은 목사의 축사가 있는 후 이성수 목사는 “미주성결교회의 모교회이자 54년의 전통을 가진 나성교회를 섬기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닌 오직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답사했다. 이성수 목사는 한국신총성결교회, 뉴욕성결교회, 워싱턴 베다니교회(MD소재)를 거쳐 나성성결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안민구 장로는 1970년 나성교회를 개척한 고안수훈 목사의 아들로 교회 교육관 건축과 분당 증축에 힘을 쏟았고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미주 전국장로회를 통해 미주성결교회 교단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나성교회는 고 안수훈 목사에 의해 1970년에 LA한인타운에 개척된 최초의 성결교회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 2024 나눔은 지원금 수여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2024 나눔은 지원금 수여식

‘사랑실천과 커뮤니티 회복을 지원키 위한 프로그램’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2024 나눔은 지원금 수여식이 25일(월) 오전 11시 GBC공개홀에서 열렸다.

이영선 사장은 “GBC는 지난 33년간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다”며 “지난 2020년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재난상황 속 커뮤니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본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않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전하는 GBC가 재난과 팬데믹 가운데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며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지원금을 받은 사역단체들과 사역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과 나눔을 통해 남가주지역에 세워진 모든 자선단체들이 더 힘을 얻고 더 풍성하게 나누는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일하 목사(GBC부사장) 사회로 시작된 2024 나눔은 지원금 수여식은 바다윗 목사(생명전환 대표) 개회기도, 이영선 목사 사역보고,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GBC이사장) 시상 및 격려사, 수상소감 발표로 진행됐고 박모세 목사 기도로 마쳤다.

이날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다음과 같다. ▲재난/난민지원(미션펀드): △실크웨이브미션(대표 김진영 선교사, 튀르키예 난민지원), △DFI(대표 김헬렌, 아이티난민지원), △정광섭 선교사(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난민지원), △서진택 선교사(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난민지원), △김석환 선교사(요르단 전쟁피해 난민지원), ▲퍼스트팬권(자선단체) 지원: △무지개가죽선교회(대표 이지혜 선교사), △미주밀알선교단(대표 최재휴 목사), △방주교회(대표 김영규 목사), △생명의전회(대표 박다윗 목사),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실로암선교미주후원회(회장 이영희 장로), △브라이드웨이 패밀리 라이프 센터(대표 양희원 교수), △헬프 피플 인 니드(대표 박종희 목사), △OC팔호모닉(대표 잔 리), △드락 미니스트리(대표 한기영 목사), △VYCC(대표 박민숙)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3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 3월 정기 예배가 지난 3월 13일(수)오전 8시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에서 김우준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의 기도 후에 이황영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어 진행된 합심 기도 시간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학교에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황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기사제공 사우스베이 목사회)



사우스베이 목사회원들이 3월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부활절의 선교 메시지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시기로, 선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 메시지는 소망, 사랑,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죽음이 우리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하는 메시지는 깊은 소망, 무한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의 소망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절망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그분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의 붕괴, 건강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부활절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선교지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빈무덤으로 증거하였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

장 확실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발전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증거한 초대교회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부활이 분명하다면 오늘날도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교사는 어느 곳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함께 그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 친구, 심지어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용서, 이해를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교지의 적대적인 상황

은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소개합니다:

1.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십시오

부활절 기간 동안 지역 Food Bank에서 자원 봉사하거나 식품 기부를 조직하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학교나 청소년 단체와 협력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조직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그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이웃과의 연결을 강화하십시오

이웃을 방문하십시오. 혼자 생활하거나 고립된 느낌을 받고있는 이웃을 방문하십시오. 작은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소외된 성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부활절 식사를 이웃이나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나누십시오. 음식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뜬뚱 뜬뚱했던 선교사와 연락하여 소식을 주고받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3.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지역 커뮤니티 정원에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녹색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원이 해변에서 정화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십시오.

4. 기부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특정 선교단체나 특별사역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거나 참여하십시오.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이나 긴급한 필요에 직면한 사람들이나 선교사역을 지원함으로써 부활절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 지식이 있다면, 지역 클리닉이나 보건 프로젝트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선교 지역에서는 이러한 봉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 전파

지역 사회 내에서 분열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대화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모임을 주최해보십시오. 부활절은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이는 공동체 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부활절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극히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선교지에서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끕니다.

부활은 죽음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기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목표, 관계의 개선, 새로운 경력 경로 탐색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선교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절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측면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개인적 성장과 변화를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활절의 새로운 시작 메시지를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개인적 반성과 목표 설정의 기회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해 동안의 성장과 도전을 평가하십시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정신을 살려 개인적, 전문적, 영적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선교지에서도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생활 습관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발하거나 강화하십시오. 부활절의 새로운 시작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새롭게 하는 데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매일 명상, 기도, 또는 반성, 영적 성장에 힘쓰십시오. 이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의미

와 목적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에 분주한 선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관계 개선을 노력하십시오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용서는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습관이나 취미 개발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자기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지속적인 학습은 새로운 시작의 정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5. 봉사 활동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단순히 한 시기를 넘어 우리의 삶을 선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를 넘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4)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영광의 무게

영광의 무게는 C. S. 루이스의 설교문이다. 이것은 1941년 11월 루이스가 옥스퍼드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행했던 설교 원고라고 알려진다. 이 설교는 고후 4:7-18을 바탕으로 전해진 설교다. 그런데 이 글이 Lewis의 글들 중 가히 '백미'로 뽑히는 글이라고 한다. 루이스의 글이 많지만, 이 글이 가진 메시지와 균형감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루이스는 신약성경은 자기 부인을 말하지만, 자기부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자기행복과 기쁨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칸트와 스토아학과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기부인은 주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을 우리는 오히려 너무 약하게 갈망한다.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삶에 실천하는 열망을 갈망이라고 표현한다. 갈망은 현실적 유혹을 이기고 장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견디는 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고상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의 품격이라고 루이스는 설명한다.

루이스는 성도들이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그리스어로 기록된 시를 감상하기 위해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학생과 견주어 설명한다. 성도가 천국을 갈망하며 인내

하는 것은 학생이 그리스어를 처음 배울 때 고상하게 그리스어로 기록된 시를 읽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런 갈망을 갖고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루이스는 이 글에서 천국, 보상, 그리고 갈망을 각각 30여 차례씩 반복해서 사용하며 논리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 글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루이스는 천국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약속으로 받고 갈망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에 있는 천국을 향한 갈망을 키워야 한다. 성경은 갈망을 강화해주는 약속(말씀)을 공급한다. 성경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묘사는 상징적이다. 이렇게 묘사된 천국은 매력적이지 않다.

루이스의 설명대로 우리가 접하는 천국에 대한 설명은 천국이 권위를 갖고 있다. 루이스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멋진 노래도 아니고, 보석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만약 천국의 소망이나 천국의 약속에 대한 설교나 해설서를 준비한다면 천국을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성경이 말하는 약속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루이스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은 대략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잘 먹거나, 대접을 받거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우주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어서 도시들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 등장한다. 성

개한다. 기쁘게 해 드려야 할 대상에게 칭찬받는 큰 기쁨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며 칭찬받아 누리려는 기쁨이다. 루이스는 한마디 더 추가한다. 창조주의 칭찬을 받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대한 루이스의 첫 번째 이해는 '하

째 모습은 광채다. 천국에서 우리는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약속한다. 이 영광의 광채는 우리가 누릴 천국의 모습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국의 완벽한 환경을 광채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설명처럼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넘쳐 흘러"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 존재의 설명이다. 상상조차 할 수



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 영광이다.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영광은 신약성경과 초대교회 저술의 중요한 주제였다. 루이스는 이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알아주시는 명에,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알아주시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루이스는 성도가 누릴 천국의 영광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기쁨이라고 설명한다. 루이스는 여기서 "낮은 존재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낮은 개념을 소

나님의 알아주심'이다. 루이스는 사도 바울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말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는 말씀이 저주요 심판이라고 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두 번

없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 성도가 누리는 천국의 영광은 심자기를 전제한다. 성도는 자기 심자기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하며 심자기를 당당히 감당해야 한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심자기를 당당히 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Kangtg1207@gmail.com

예수 다시 사셨네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일철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Tel. (336)841-8439
www.kpcgnc.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socalsamsung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예수 부활하셨다

... Like Jesus who had the faith of Resurrection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www.sunghwachurch.org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213.447.3118



담임이동진 목사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눅 7:47-50) 찬 260장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인이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고 받게 하여 주셨다. 주인으로부터 죄를 사하여 주심을 받게 된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며 자유 함을 받게 되었다. 육신에서 오는 책망과 질책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영원한 주인에게서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주인이 해결하여 주신 것이다.

화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도록 수고하라 (눅 8:5-8) 찬 289장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기에 마음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씨 안에 있는 생명의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마귀가 사망의 생각들을 장애물 삼아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생각의 노동을 통하여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말씀으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영적 실상을 보아야 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씨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 실상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인의 농사다. 주인이 거두시는 알곡들이다. 씨는 보이지만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 실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수 광풍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눅 8:22-25) 찬 400장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두려워함을 가졌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신다. 그들은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더 믿어야 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만을 믿어야 했다. 바

람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 말씀의 명령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만물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질서를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배 안에서 주님과 같이 하신다. 주님이 같이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목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라 (눅 8:43-48) 찬 436장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열 두 해 앓아왔던 불쌍한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신 것이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간 것이다. 그 능력으로 고쳐 주신 것이다. 몸이 회복이 되고 오래된 혈루증이 마침내 치료되었다. 뿐만 아니

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영광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육신으로 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갖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죄를 고백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금 주님과 연합함으로 받는 주의 능력 (눅 9:1-2) 찬 370장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일 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제자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일 하시는 방법이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

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며 그 능력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며 증거 하게 하신다.

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 (눅 9:22-23) 찬 439장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삼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수준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일이 주님에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기에 자신이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뜻 안

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죽음을 깨닫게 된다. 그 죽음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교육 (46)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부활절과 기독교교육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크리스천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크리스천들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고전 15:14).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청소년 성경공부 그룹들을 구성하여 부활과 청소년 삶의 관계를 토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앙과 의심과 부활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활절의 이야기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에 걸쳐 베드로와 12사도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행 1:3; 고전 15:4-7).

넷째, 부활절과 연관된 주제를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성인교육 클래스나 소그룹들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서적과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과 토론을 이끕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시 16:10; 마 16:21; 17:23; 20:19).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막 16:6).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행 2:32).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기에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대대로 지키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된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섯째, 연극이나 춤극 등을 통해 최후의 만찬, 십자가 처형, 빈 무덤같이 부활절에 관련된 장면들을 재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절 이야기를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고 청중이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활절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인 춘분(春分) 후 첫 번째 보름달 바로 다음에 오는 주일에 기념합니다. 보통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가 됩니다. 2024년 춘분은 3월 19일이고, 보름달은 3월 25일에 뜹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보름달 후 첫 주일인 3월 31일입니다.

여섯째, 부활절을 주제로 하는 미술활동이나 음악공연을 통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을 소재로하는 그림을 그리든지 부활에 관한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종교적인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이고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의 모퉁이돌입니다. 세계 모든 곳의 크리스천들이 예배, 특별집회, 달걀장식, 달걀찾기, 유월절식사 등의 행사에 동참하며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일곱째, 가족이 모여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교재, 공작활동 자료, 또는 가족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독교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절의 의미를 살리고 부활절을 의미있게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덟째, 부활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걀찾기, 주민들을 위한 부활절식사, 자원봉사의 기회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는 성경공부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 속죄의 의미, 죽음으로부터 승리, 등등을 주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부활절을 맞으며 기도의 시간을 기획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이드를 개발하여 나누어주거나 단체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줍니다.

둘째, 부활절 이야기와 부활의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주일학교 교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적합한 교안과 학습활동을 고안하여 어린이들도 부활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열째, 소셜미디어, 교회 웹사이트, 이메일 소식지 등을 통해 부활절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가이드, 간증문, 부활절의 중요성에 관한 묵상, 등등을 문서화하여 나누어줍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기독교교육적 방법들을 활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부활절 행사에 회중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 사망을 정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5-58).

해피 이스터!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피지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715 Northern Bl.,
 Great Neck, NY, 11021
 Tel. (516)466-8063

뉴욕동원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Tel. (718)321-9199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Tel. (917)750-817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성실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석희
 45-31 220th Place,
 Bayside NY 11361
 Tel. (646)641-2247

뉴욕수정교회
 담임목사: 황영송
 25-67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9800

뉴욕심포니교회
 담임목사: 신동기
 42-70 156th St.,
 Queens, NY 11355
 Tel. (646)339-0196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662-661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 우광필
 17800 36th Ave. W.,
 Lynnwood, WA, 98037
 Tel. (425)510-852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5-02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1904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10 Oak Street,
 Orangeburg, NY 10962
 Tel. (845)359-1458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임영건
 4021 159th St #1,
 Flushing, NY 11358
 Tel. (631)327-8046

지역교회부흥선교회
 대표: 허윤준 목사
 Tel. (718)637-147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